

산업계, 임단협 희비 엇갈려… 車 ‘타결’ 조선·철강 ‘파업임박’

SK하이닉스 잠정합의안 부결
HD현대중 부분파업 등 위기감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조선·철강·반도체 업계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9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HD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파업을 앞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잠정합의안 부결로 교섭 향방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임금·성과배분을 둘러싼 입장차에 더해 사업장별 쟁의 경험의 차이도 향후 교섭의 변수로 꼽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일 집행간부·교섭위원·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7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4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에 이어 8~10일 산하 조직별 순환파업을 벌이고, 15일에는 전 조합원으로 확대한다. 실제 파업 시 2023년 이후 4년 연속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첫



HD현대중공업 작업장 전경.

/HD현대중공업

파업 기로에 섰다. 노조는 오는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포항·광양제철소 각 1개 공장에서 4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실화하면 58년 무분규 기록도 중단된다.

노조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공유, 상여금 800% 확대, 주 4.5 일제를 요구한다. 포스코 노조도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와 함께 안전특별위원회 설치, 장시간 노동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양사 모두 노조 요구에 부담을 나타내지만 이유는 다르다. HD현대중공업은 조

선업 특유의 실적 변동성과 R&D·설비투자 재원 확보 필요성을, 포스코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와 보호무역 확산 속 요구안 수용 시 약 1조4000억원의 비용 발생을 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잠정합의안 부결로 교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PS) 자사주 분할 지급안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로 부결됐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다시 협의할 전망이다. 지난 2023·2024년처럼 재협상을 거쳐 2차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완성차 업계는 이날로 올해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한국GM·KG모빌리티·르노코리아·기아에 이어 주요 완성차 업체의 교섭이 모두 끝났다.

파업을 예고한 사업장에서는 사측의 추가 제시안과 함께 노조의 쟁의 경험도 향후 교섭의 변수로 꼽힌다. 쟁의행위는 적

법성 여부에 따라 노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뿐 아니라 노동조합 법상 금지 범위와 협정근로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법한 파업 요건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권태혁 노무사는 “파업 일정 공개는 사실상 교섭의 마지막노선을 설정했다는 의미”라며 “사측의 유의미한 추가 제시안이 없다면 파업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파업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 실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포스코 노조는 첫 파업 가능성을 앞두고 전략과 수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교섭은 노사가 서로의 협상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삼성·LG, 100만원대 실속형 노트북 시장 격돌

삼성전자 ‘New 갤럭시 북6’ 출시
LG전자 ‘그램북 AI 2026’ 선풍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CPU) 등 주요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침플레이션’으로 노트북 가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가격대별 라인업을 넓혀 소비자 선택 폭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New 갤럭시 북6’와 ‘LG 그램북 AI 2026’을 출시하며 100만원대 노트북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날 New 갤럭시 북6를 국내 출시했으며 LG전자는 오는 7일부터 LG 그램북 AI 2026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New 갤럭시 북6의 가격은 CPU와 운영체제 등 세부 사양에 따라 119만~149만원이다. 지난 4월 출시한 갤럭시 북6의 시작 가격인 160만원과 비교하면 진입 가격이 41만원 낮아졌다.

제품 사양은 학습과 과제, 업무 등 일상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인텔 ‘코어 시리즈3’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한 번 충전하면 동영상을 최대 25시간 재생할 수 있다. 35.6cm(14형) 디스플레이에 16대10 화면비를 적용했으며 무게는 1.35kg이다.

갤럭시 생태계를 활용한 연결 기능도 지원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PC



‘New 갤럭시 북6’

/삼성전자

에서 열거나 스마트폰·갤럭시 탭과 PC 사이에서 파일을 옮길 수 있다. 이미지 배경을 제거하는 ‘AI 컷 아웃’, 웹페이지 문장을 실시간 번역하는 갤럭시 AI 기능 등도 제공한다.

LG전자도 실속형 노트북 제품군인 그램북 라인업을 확대한다. 오는 7일 출시하는 LG 그램북 AI 2026 14형의 출하가는 145만원부터다. 초경량 프리미엄 제품인 ‘LG 그램’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에는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인 2026년형 인텔 코어 시리즈3 프로세서와 61.2Wh 배터리를 탑재했다. 최대 30.5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소재의 풀 메탈 바디를 적용하면서도 무게 1.29kg, 두께 14.9mm로 휴대성을 높였다. 그램북 시리즈에서 14형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LG 그램북 2026.

/LG전자

이번이 처음이다.

LG 그램의 기기 연결 경험도 이어받았다. ‘LG 그램 링크’를 이용하면 제조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연결해 사진과 동영상 등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코파일럿 단축키를 통해 윈도우 AI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며 HDMI와 USB-A·USB-C, 유선 랜 등 다양한 단자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New 갤럭시 북6를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한다. LG전자는 오는 7일부터 LGE닷컴과 오픈마켓에서 그램북 AI 2026 판매를 시작하며 구독 방식도 운영한다. 구독 고객에게는 최대 4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 선택한케어 서비스에 따라 배터리와 키보드를 구독 기간 내 한 차례 무상 교체해준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산 1호 프로젝트 ‘H&L어드밴스드’ 출범

고부가 제품 중심 사업구조 전환

국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인 ‘대산 1호 프로젝트’의 통합법인 ‘에이치앤엘(H&L)어드밴스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H&L어드밴스드는 앞으로 3년간 연산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과 저수익 설비를 줄이는 동시에 남은 설비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한다.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재편을 원가 절감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확보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케미칼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6월 대산사업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H&L어드밴스드로 변경했다. 합병 전 HD현대케미칼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보유했지만 통합 이후 양사가 각각 50%씩 나눠 갖게 됐다. 초대 공동대표는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측에서는 천양식 전 롯데대산석화 대표가

공동대표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법인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연산 110만톤 규모 NCC 가동을 중단하고 양측의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운데 중복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시설도 순차적으로 줄인다. 대산에서 감축하는 NCC 생산 능력은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국내 전체 감축 규모인 270만~370만톤의 약 30~40%에 해당한다.

설비 감축과 함께 남은 생산시설의 효율화와 고부가 제품 전환에 총 5800억원을 투입한다. 시설 통합과 생산효율 향상에 2450억원, 고부가 제품 생산 전환에 3350억원을 배정했다. 범용제품 생산능력을 줄이는 대신 남은 설비에 생산을 집중해 현재 80% 수준인 가동률을 최대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 확충도 추진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부도 금융·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엔컴퍼니그룹, 생성형 AI 전면 적용

업무 전반 AI 활용범위 확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그룹 공통 업무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접목한다.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탐색과 기획, 의사결정, 글로벌 협업 등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전사 업무 생산성 제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그룹 공통 업무 플랫폼 ‘아레나(Arena)’를 에이전트 AI 플랫폼 전문기업 가온아이와 협업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아레나는 일주일간 베타 테스트를 거쳐 실제 업무 환경에서 주요 기능을 점검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직원의 직무와 업무 목적에 맞춰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AI가

지원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반복 업무 자동화와 맞춤형 업무 봇 구성 등을 지원해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플랫폼 개편은 한은시스템 합류 이후 확대된 그룹의 사업 및 조직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타이어·배터리·열관리로 이어지는 3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데 이어 계열사 간 조직·문화·인프라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일상 업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AI 활용이 실제 생산성과 실행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에너지솔루션, 美 현지 탄산리튬 확보

스맥오버 리튬 공급계약… 10년간 8만t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현지에서 탄산리튬을 장기 확보하며 북미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조달해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스맥오버 리튬(Smackover Lithium)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리튬 개발업체 스탠다드 리튬(Standard Lithium)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놀(Equinor)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스맥오버 리튬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9년부터 10년 동안 탄산리튬 총 8만톤을 공급받는

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18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탄산리튬은 미국 아칸소주에서 추진되는 ‘남서부 아칸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다. 스맥오버 리튬은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고품질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탄산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북미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